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찬 양\* 다같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다같이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말씀교독 다같이  
 사도행전 2:43-47

말씀선포 김원재목사  
 “주님의 꿈을 회복하는 교회”

찬양과결단\* 다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 493)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작은 선물과 함께 심방이 있을 것입니다.
3. 현장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연락받으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5.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6.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5월 27일부터 예배당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4,972

## 영상예배 그리고 현장예배

교회력에 따르면 원래는 지난 5월 10일이 어버이주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어버이주일을 아버지날인 오늘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월 중순이 되면 현장예배가 제대로 드러지리라 기대하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부분적인 현장예배가 드러지고 있고, 나이드신 성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주일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주일예배의 영상예배가 시작된 것은 3월 22일부터입니다. 그날은 회중 20명이 참석하는 현장예배와 함께 영상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예배만 드리기 시작한 날은 3월 29일부터입니다. 그렇게 두 달간은 영상으로만 주일예배를 대신했습니다. 두 달여 영상예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5월 3일 성찬주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난 후 5월 31일 9명의 성도들과 함께 현장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도들을 조별로 나누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조가 먼저 31명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2조가 현장예배에 33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현장예배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일체성, 현재성, 현장성은 반드시 있어서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부득불 영상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지만, 이것은 현장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형태가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현재적으로 현장에서 드리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